

# 앞산에 오면 편안한 '음악도량' 이...

## 2월 12일 대구불교음악예술원 개원

대구에 불교음악문화공간이 마련된다. 2월 12일 개원하는 대구불교음악예술원(원장 이달철)이 그것.

대구 앞산 자락 70여 평 공간에 마련된 대구불교음악예술원은 35평 약 60석 규모의 강의실과 15평 정도의 휴게실, 사무실이 들어서 있으며,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불자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특히 모두가 화합하고 편안하라는 뜻에서 화안당(和安堂)이라 이름 지어진 강의실은 최신 디지털 음향시설은 물론 각종 세미나와 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청각 영상시스템이 완비돼 있다.

이 공간은 저렴한 가격(2시간에 5만 원)으로 모든 불교단체들이 회의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합창 연습공간이 부족한 교계 합창단들의 연습공간으로 무료 대여할 계획이다. 또 강당 앞에는 작은 단을 마련해 두었는데 전문음악인 불자들이 소규모의 음악회를 수시로 개최해 음악을 통해 지역불자들과 소통하는 불교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산이 바로 보이는 휴게실 공간은 고품격 클래식 음악감상실의 분위기를 풍기는데, 아날로그 음향시설이 갖춰져 있다.

대구불교음악예술원은 불자들에게 잘 알려진 찬불가 '우리도 부처님같이'를 작곡한 이달철 원장의 10년 넘는 발

원에서 비롯됐다. 늘 개신교의 YWCA와 같은 음악문화공간이 불교계에도 마련되기를 발원해왔던 것.

이 원장은 "다종교에 비해 불교계의 음악문화 후원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며 개신교의 경우 교회 하나가 이런 문화공간을 2-3곳 가지고 있는 곳도 많은데 불교계는 종단차원에서조차 이런 공간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러나 음악문화공간을 위한 재원이 마련이 문제였다. 10년의 발원 끝에 사비를 털었고, 음악을 사랑하는 목자가 몇몇이 이 원장의 뜻을 적극 지지하며 나서 대구불교음악예술원이 마련됐다.

대구불교음악예술원은 지역전문음악인들과 불자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일반불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노래교실과 색소폰, 대금, 해금, 피아노 반주법 등 다양한 악기레슨 강좌, 음악이론 강좌가 준비돼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음악인으로 성장하고자하는 불자 자녀들의 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는 15명의 전문 교수진이 포진해 있다. 이미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교수진들 모두 불학해룡은 상태. 모두 불자음악인들로 구성돼 있으며, 열악한 환경조건으로 인해 불자음악인을 구하기 어려웠던 몇 개의 과목은 친 불교적인 교수진으로 구성해 차후 이 분야의 전문불자음악



오는 2월 12일 개원할 대구불교음악예술원 강의실 모습.

## 작곡가 이달철씨 10년 발원의 결실 교계 합창단 연습공간 무료제공 일반인 위한 악기레슨·음악 강좌도

인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노래교실은 찬불가를 배우고 싶다는 불자들의 뜻을 반영해 매월 2주는 찬불가를, 1주는 가곡을 통한 성악발성법을 배우고, 1주는 가요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다. 50명 정원 3개월 과정 회원제로 운영되며,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나눠 심화과정에서는 지역 교계 합창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이달철 원장은 "전국 불교계에서 음악

문화공간으로 첫 발자국을 내딛는 작업이기 때문에 걱정도 많다"면서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불교음악문화공간에 대한 불자들의 순수한 애정이 느껴져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게 된다"고 말했다.

대구불교음악예술원은 2월 12일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며, 노래교실을 비롯한 각종 음악 강좌는 모집기간을 거쳐 3월 중 개설될 예정이다. (053)657-2333

배지선 객원기자

# "영어 배우러 사찰에 가요"

## 부산 흥법사 제1회 영어 템플스테이 개최

"I vow to save all beings.(가없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부산 흥법사(주지 삼산) 법당에서 열린 스님의 법문 시간. 스님도 아이들도 영어로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홍서원을 영어로 말하는 아이들에게 스님은 스티커를 나눠준다. 스티커를 서로 차지하려는 아이들은 저마다 손을 들고 영어 사홍서원을 읽고 뜻을 풀이하고 있다.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흥법사가 처음으로 개최한 영어 템플스테이 현장에서 아이들의 영어 말하기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4, 5, 6학년용 대상으로 열린 영어 템플스테이에는 경기도 대전, 대구, 포항, 마산 등에서 40명이 참석해 영어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내면서도 사찰의 문화를 알뜰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진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또한 원어민 강사 4명과 영어에 능통한 자원봉사자 10명이 교사로 아이들의 영어 템플스테이를 도왔다(사진).

발우공양, 예불은 폴란드 출신의 원통



## 발우공양·예불 등 영어로 놀토 프로그램에 상설화

스님이 영어로 진행했고, 영어로 작성된 지시문을 읽고 길을 찾는 로드맵 게임, 조별로 나눠 스토리 텔링, 단어 맞추기, 뮤지컬, 영어 찬불 동요 배우기 등을 통해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혀나갔다.

흥법사는 3월부터 영어 템플스테이를 늘려 체험 학습 프로그램으로 상설화할 예정이다.

주지 삼산 스님은 "영어 템플스테이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사찰에 오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 사하불교연 신년하례

### 4대 회장 보각 스님 취임

사하불교연합회(회장 보각)는 1월 30일 부산 사하구 당리동 사파이어 호텔 대연회장에서 신년하례 법회 및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미통사 주지 정각, 표충사 주지 정은, 천은사 주지 금종 스님,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임채수 법회사상연구소장을 비롯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는 화엄정사 주지 보각 스님이 4대 회장에 취임했다.

보각 스님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로 의지하며 사는 생명의 소용돌이 속에 이 해처럼 빛나며 존재하는 사하불교연합회가 되겠다"며 "보현보살의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고 봉사하는 연합회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각 스님은 법어를 통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이 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불자들의 수행이요 정진"이라며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행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96년 7월 창립된 사하불교연합회는 2004년 3월부터 불교자원봉사회에서 하는 독거노인 무료 공양을 실시해왔으며 2006년 4월부터는 매 주 월, 화요일마다 무료 공양을 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 지울 스님 1년 구형

### 천성산 공사 방해 이유

천성산 터널 공사 현장에서 공사 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지울 스님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월 31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 김형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천성산 터널 공사장에서 굴착기 앞을 가로막고 좌선하는 등 총 24회에 걸쳐 고수철도 공사업무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공사방해로 인해 사업과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사현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울 스님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다. 천미희 기자

## 현대불교 지사안내

- 부산지사 : (051)632-0064
- 대구지사 : (053)768-8008
-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 경남남부지사 : (011)571-5316
- 울산지사 : (052)272-0909

# 지역 대소사 우리가 챙겨요

## 범어사 포교당 '반아원' 해운대 정화 봉사



겨울바다를 즐기는 사람들이 해운대 백사장을 거닐고 있을 때, 노란 조끼를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닷가를 따라 늘어선

화단에서 휴지 줍기에 여념이 없다. 해운대 범어사 포교당 반아원(주지 무종) 신도들이다. 반아원 불교대학을 졸업한 신도들로 구성된 봉사 모임 사무랑심회(회장 이유식) 회원 25명은 1월 25일 해운대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보다 깨끗한 부산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봉사에 나섰다(사진).

화단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던 담배꽂이와 휴지를 줍고 있던 봉사자 방연순(44)씨는 "봉사가 좋아 친구따라 짝에 왔는데 불교 공부도 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어 좋다"며 활짝 웃어 보였다.

천미희 기자

2006년 10월 창립된 사무랑심회는 80여 명의 회원들이 부산진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봉사자 양성기관 교육을 수료한 후 지역은 물론 불교계 각종 행사에 봉사자로 활동해오다 이 날은 사찰이 있는 지역 내 봉사에 나선 것이다.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갖는 정기 봉사 활동에서는 대천공원, 팔관회, 범어사 개신대, 금정산인요양원 개원 전 대청소 등의 청소에 힘을 보탤고, 사무랑심회 산하에 관음회라는 별도 봉사회도 만들어 군법당 포교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유식 회장은 "지역 내의 여러 가지 대소사 뒷바라지를 하는 것은 불교의 사상을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스스로의 정진에도 도움이 되고 대사회적으로 불교의 역할을 키워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봉사의 의미를 밝혔다. 천미희 기자

## 부산불교방송 개국 12주년

### 박순곤 신임 사장 취임법회

부산불교방송(사장 박순곤)은 2월 1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국 12주년 기념 및 박순곤 사장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불교방송 재단이사장 중화,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영주암 회주 정관,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흥승기 불교방송 사장, 허남식 부산시장 등 6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박순곤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부산불교방송이 포교와 전법의 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전기 신(편)입학 모집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로 단체지정 되었습니다.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영산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록을 향한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승려 및 일반인을 모집합니다.

※ 종단을 초월하여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1. 모집내용: 실기, 이론 강의

학년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과(일용의식)	월,수	오후 3시-5시	50명
2학년	가배과	목	오후 3시-5시	50명
3학년	영산과	금	오후 3시-5시	50명
불교무용(작법)	바라/나비춤/법고춤	화	오후 3시-5시	50명
불교의식(실기)	시련/대명/관속 등	화,금	오후 5시-7시	20명
불교의식(이론)	불교의식 이론	화	오후 1시-3시	재학생
불교음악 & 무용(이론)	불교음악/ 불교무용이론	월	오후 1시-3시	재학생

- 교수진 : 김구해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 마일운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준보유자)
- 이기봉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준보유자)
- 심만춘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 김효성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법패 이수자)
- 김법현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영산재 이수자)
- 한해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작법 이수자)

## 2. 응시자격 : 승려, 일반인

##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 [옥천범음대 http://www.bongwonsa.or.kr/ 다운로드받기]
- 합격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 (2) 증명사진 3매(반명함)

##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7년 2월 1일 ~ 3월 2일까지

## 5.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옥천 범음대학 교무처 및 인터넷 접수 tnfus0821@naver.com

## 6.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7. 입학 및 개강일

2007년 3월 5일 월요일 (봉원사 강의실)

## 8. 특전

-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신입생, 재학생 성적 우수자 장학금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 9. 문의처

[1]200 - [1]5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옥천범음대 02)392-3234 / FAX 02)393-9450

이수자 및 전수생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이수자(12명)	장병호(청봉) 조광현(혜산) 김재운(선각) 조명환(효광) 오세균(보운) 박성호(처명) 변호근(준광) 류지연(화산) 심인(지해) 김해숙(선혜) 한정미(혜사) 신금자(주혜)
전수생(19명)	조보현(고담) 박철일(진현) 이주상(성진) 김광화(광호) 엄인용(인성) 김동찬(동인) 서준석(혜성) 이자복(혜명) 김태곤(만경) 김성욱(구수) 김근선(보덕화) 이영근(법일) 방한열(진원) 김창수(행준) 김민정(동환) 김규운(적광) 장완순(행범) 노명열(혜일) 박태수(광조)